킹제임스 성경학교

성경강해 SR#1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송 요 셉

제 16 강의 : "오실 것과 오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알게 하신 그리스도

기도 ◀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 속에 말씀의 전신갑옷을 입고 그 말씀의 칼로 원수를 공격해서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와 소개 ◀

오늘은 시편 16 편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오시기 전 1000 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하는 문제의 답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볼 수 없는 분을 아는 것』**이고, 왔다가 올라가신 분도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아는 것』** 입니다.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법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는 것"** 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2000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는 본 적도 없는 분을 어떻게 압니까? 아무리 이론과 지식으로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무엇을 어떻게 알게 하셨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말씀 16: 시편 16 편

1 ① **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2 오 내 혼아 네가 주께 말씀
드리기를 주는 나의 주시라 내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나 3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4 다른 신을 급히 좇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5 주는 내 유업과 내 잔의 분깃이시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6 내게 떨어진 경계는 쾌적한 곳이니 정녕 나는 훌륭한 유업을 가졌나이다 8 ②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③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9 ④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10 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11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 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알게 하신 것들 ① —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쓴 성경 기자들 ◀

다윗은 주님이 오시기 전 천 년 전에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때의 성령은 지금처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성령"**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시편을 쓰게 하기 위한 것"** 같은 겁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 다윗의 속 안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알게 하신 것들 ② — 범죄하면 떠나가고 징계하시는 성령(구약시대) ◀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셨다고 고백합니다. 영으로 자기 안에 늘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범죄하니까 성령이 떠나갔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걸 아는 다윗은 **"범죄했을 때" → "주의 영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 성령을 걷어가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징계"**를 받습니다. 매를 때리지요. 잠언은 **"네 자녀들을 매질하라"**고 합니다. **"매질을 해야만 그 혼을 지옥에서 건져낸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품에 있을 때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안됩니다. 12 세 이전이지요. 영적으로 잘못되기 전에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은 법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때리면 감옥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 법을 만들어 그렇게 지배하는 겁니다. 한국도 요즘에는 매를 댔다가는 큰 일 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뺨도 맞고, 회초리도 맞고,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그러나, 어릴 때 체벌하지 않으면 버릇을 못 고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혜롭게 가르쳐서 아이들의 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알게 하신 것들 ③ — 오른편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

다윗은 항상 주님을 자기 앞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 오른 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 믿음으로 항상 『**오른 쪽**』을 봤을 것입니다. 군에서도 사열할 때 "우로 봐!"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사령관이나 대통령이 있는 단상 앞을 지나갈 때 "우로 봐!" 하면 군인들이 "오른 쪽"을 다 봅니다. 그처럼 다윗은 늘 "오른 쪽"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의 보좌 오른 편』에 앉히셨다"** 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주님의 오른쪽 편에"**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가 목을 돌려도 오른 쪽은 잘 돌아가는데 왼 쪽은 잘 안 돌아가는 게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오른 쪽"**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알게 하신 것들 ④ — 소망 가운데 안식하는 육체 / 부활 ◀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한 다윗의 고백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육체가 소망 가운데 안식하는 것**"은 →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부활할 때 자기 육체도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육체의 소망이지요. 부활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썩어질 몸이라면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라"** 했습니다. **"육체가 소망 가운데 안식하는 것"**, 즉, 주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 **"육체를 썩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오실 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 거룩하신 분의 몸이 → 썩지 않을 것"**을 그는 알았던 것 입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오신 다음에 아는 건 마찬가지, 그게 그겁니다.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계시면 언제 살고 있든지 그리스도가 썩지 않고 부활 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나사렛 예수의 아들 요셉의 무덤'을 찾았다고 난리가 났지요. '예수가 애를 낳아서 같이 묻혔다....'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성경이 거짓말 한다!' 고 볼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속아넘어가기 쉽습니다. 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지만, 주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도 주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주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14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점쟁이 무당놀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 /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그 때 벌써 증거했고, 우리도 **『오신 예수 /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요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기름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은 "초림 예수"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부활 후에 메시아로 다시 오셔서 자기 보좌에 앉으실 예수"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알게 하신 것들 ⑤ — 지옥에 내버려두지 않는 혼 ◀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도 사도행전 2 장에서 똑같이 증거했습니다.

22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실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된 분이니라 23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으나 24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25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뵈었으니 이는 그 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로 요동치 못하게 하심이라** 26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 안식하리니** 27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28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께서 나를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로다**』라고 하였음이라 29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음이라 30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31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 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32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33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 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4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35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 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 할 수 없습니다. 왜 중국의 수많은 지하 교인들이 감옥에서 고생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부인할 수 없지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 다윗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2 장은 증거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문의 그 혼은 그리스도의 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가신 주님의 혼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죄만 지옥에 다 던져버리고 다시 올라오신 거지요. 세상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당부와 권면 ◀

1 알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라

아까 그 무덤은 그 당시에 또 다른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아 예수라고 한 사람의 것일지도 모르지요. 주님은 무덤에 갖힌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베드로는 그 일에 증인인 것입니다. 가짜 무덤을 찾아내어 주님이 거기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오늘날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 보고, 알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그러나, 공부해서 지적으로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또 하나의 지식으로만 배운 사람은 신학 대학에서 제아무리 박사 학위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오실 주님, 오신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과 그의 나라를 아는 것"** 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로,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일 때, 모인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즉,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 교회"** 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 두 세 사람이 모일 때, 그 곳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주님이 오실 때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멸하게 되면, 이 땅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2 다시 오실 주님과 그의 나라를 깨달아 알으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왕들을 멸합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날에 회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제사장 민족이 된다고 성경은 누가복음 1 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28 그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 복 받은 자로다 라고 하니 29 그녀가 천사를 보고 그가 전하는 말에 몹시 당황하여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30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31 보라 네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33**『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34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35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인데, 앞으로 "그 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의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대부분의 교회들은 인위적이고 상업적인 "예수 탄생의 축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분"**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영원한 왕"**으로 오십니다. 그 예언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7 장입니다.

12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곧 네 뒤에 올 네 씨를
세우고 내가『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13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15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는 떠나지 아니하리니 16 **네 집과 네『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네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17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또 이 모든 환상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로 고하니라

기원 606 년에 다윗의 보좌는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 수 천 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왕위를 이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3 환란 끝에 회복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라

이처럼 분명하게 성경이 예언한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과정에는 큰 환란이 있겠지만 끝까지 보호하실 것을 스가랴 12 장에 말씀합니다.

6 그 날에 내가 유다의 총독들로 나무 가운데 불화로 같게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편과 왼편에 에워싼 모든 백성들을 삼킬 것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본래의 자리 곧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116

7 주는 또한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 **그 날에 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그 날에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 같이 되겠고 다윗의 집이 하나님같이 그들 앞에 선 주의 천사같이 되리라** 9 **그 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그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앞으로 그 날에 예루살렘을 치러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에워싸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경상남도만한 조그만 나라를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결과, 이 작은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보 분야는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입니다. 무기 체계도 이 나라 사람들은 이미 로보트 무기까지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그걸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나 시리아가 둘러싸고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육일전쟁 때도 시리아가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다 도망가게 했습니다. 왜 6 일만에 끝났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안식일이 7 일째이기 때문입니다. 6 일째 되는 날 시리아 연합군이 퇴각하고 예루살렘의 동쪽 반을 차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란 같은 나라가 대들고 있어도 앞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을 총공격할 이란, 터키, 에디오피아,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그 날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앞으로 될 일이 다 나와있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앞으로 될 일"이 훤히 나와있는 성경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이, 중동이, 섬 나라들이 어떻게 될 지 다 나와있는 것입니다. 환란 때에는 평안히 거하는 섬 나라에 불이 내려온다고 나와있습니다. 요즘 섬 나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지진이 나고 난리지요.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칠레의 8.8 지진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도 100 정도의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고 타버린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이 내려와 타버릴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지요. 그러나 불이 내려오니까 폭삭 가라앉아 타버리고 지금은 소금 땅이 되어있습니다.

4 죄로부터 자유하여 건강하고, 그렇지 못해 오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라

이제 곧 주님께서 왕으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3000 년 전에 알았는데, 지금의 우리가 모른다면 수치 아닙니까? 성령이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죄값을 누군가 치루어 줘야만 노예에서 풀려나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다 "해방"되고 →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저주를 못 이기는 거지요. 육체의 병도 저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다 하고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걸 믿게 되면 아파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주님 나 이 병 좀 치료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야, 네가 안 좋은 것만 자꾸 먹고 나보고 치료하라면 어떻하냐? 그건 네 죄다. 네가 나쁜 거만 자꾸 먹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탐식을 하지 말고 좀 건강식을 먹어라" 하시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고 어떻하라는 거냐?"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잘못해놓고 무조건 병 고쳐달라고 합니다. 삽겹살을 매일 먹고 나 좀 고쳐주세요 콜레스테롤을 없애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믿음으로 절제해야 합니다. 탐심, 탐욕, 탐식도 다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타이거우즈, 그 사람은 섹스를 탐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만 여자를 가까이 안 해도 못 견디지요. 성의 노예입니다. 재활센터에 가봐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방법이 없지요. 예수를 믿어야만 해방입니다. 믿고 성령이 들어와야만 해방됩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나 피 속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저주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면 그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병이란 게, 심신의 병도 있지만 영적인 병도 있습니다. 영적인 병은 그 때 그 때 말씀을 먹어야 치료가 됩니다. 마음의 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육체의 병은 나쁜 것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너무 미신적으로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말씀도 안 읽고 행함도 없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할 때 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독수리같이 되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나이가 7,80 이 되어도 왕성한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힘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나이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주와 나이 같은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되지요. 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저주받은 자들을 해방시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5 주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그 날의 특권과 축복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되도록 하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주님은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잠깐 들어갔다가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빼앗겼지만, 진짜 여호수아인 예수님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건너서 재림하실 때 →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때 이 땅의 수도는 워싱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은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이지만, 지금은 아니고 그 분이 오실 때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서 일한 만큼 → 그 때 주님이 다스리실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특권』을 받고, 그 천년통치가 끝나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히 사는『축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 집이고, 그 집이 이 땅에 내려오면 여기서 다스리는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특권과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 강림하시는 날에 시작됨을 데살로니가전서 4 장은 말씀합니다.

13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14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 "잠들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가 죽으면 그들은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슬프다고 엉엉 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은 잠깐 잠들어도 **『혼과 영은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시면, 그 영과 혼이 그 몸으로 들어가서 →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는 게 진짜 신앙이지요. 이 사실을 믿으면 겁날 게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 좀 기분 나쁘면 자존심 상한다고 난리지만, 이걸 믿는 사람은 끄떡없습니다.

6 정말 잠시 잠깐 후의 일이다 알아야 산다 열심히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라

이제 잠시 잠깐 후면 그 날이 되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제가 미국 올 때 29 세 였고, 뉴욕에 있다가 85 년에 LA 에 왔으니까, 벌써 25 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잠깐 입니다. 어제 같습니다. 다시 25 년 후 저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잠깐인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속는 거지요. 주님이 오셔야만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땅에 있으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만, 죽은 사람은 이미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앞섰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시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부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 때부터 특권과 축복은 시작됩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믿는 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마냥 편안해 할 때가 아닙니다. 섬나라들에 불이 내리고 전세계에 재앙이 일어나지요.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하면 여긴 편안합니다. 지진, 눈, 비, 산불 … 전세계가 재앙으로 온통 난리입니다. 칠레, 아이티 … 한국도 이젠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지요. 어떤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누가 기도하는데, '여기에 지진이 온다'고 해서 10 만 명인가가 아틀란타로 갔다고 하지요.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지진대는 하나님이 옮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히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려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죽는 날이 진짜 사는 날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이 그 믿음을 갖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7 그 날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지만, 심판을 돌이키는 것은 이미 늦었음을 경고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의와 화평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 **"교만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들"** 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한 마태복음 5 장 5 절은 유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사람의 수명이 천 년을 사는 나무의 수명과 같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사납게 만드는 육식 대신 짚을 먹는 순한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뛰어 놀지만, 죄를 범하면 → 주님이 **『입의 막대기(철장)와 입술의 호흡』**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 바로 죽게 됩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때 세상을 치는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 장입니다.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2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3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4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5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니라 6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8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9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헤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10 그

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11 **그 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앗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중국)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13 또한 에프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질 것이요 에프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않을 것이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면 세상이 다 주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지요. 그 날에 이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을 차지하도록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 모으시는 날이 그 날입니다. 이미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전역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다 돌아오면 끝나는 거지요. 미국의 유대인들도 그들의 부와 모든 것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미국도 무너집니다. 더 늦게 전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8 그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라

6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7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시행하시리라

119

이사야 9 장의 이 말씀에서 **"주님의 어깨에 정부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the governer,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성경은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루어질 일도 분명히 믿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 지겠습니까? 이사야 65 장은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왕국을 회복하실 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미리 알게 하시는 겁니다.

① 17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② 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③ 20 거기에는 날 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 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백 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④ 21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 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22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⑤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23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 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24 그 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재산을 다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① 새로 창조된 하늘들과 땅과 예루살렘에서 ② 더 이상의 고통도 받지 않고 ③ 오래 오래, 그리고 영원히 살며 ④ 자기 집들이 다 있고 자기 포도원이 있고 ⑤ 헛고생도 없고 잘 먹고 그들이 나무처럼 오래 살면서 재산을 얻고 줄줄이 자식을 낳는 등등의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사자나 이리나 뱀이나 동물들은 모두가 온순한 자연농원에서 살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일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9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신 "마지막 때에 이루실 아버지의 뜻"을 잊지 말라

그 날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은 →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을 멸하는 것"** 입니다. 마귀를 멸하고 죄를 없애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없어진 새로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영원무궁토록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별들의 수를 셀 수 없습니다. 무한한 창조는 영원히 계속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 마귀를 멸해 죄와 사망의 저주를 없애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스가랴 14 장은 말씀합니다.

1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뉘리라 2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3 **그 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4 그의 발이 그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민족들의 코를 아가리에 꿰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원수를 갚지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합니다. 올리브 산이 갈라져 남과 북으로 절반씩 옮겨지면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그 전쟁이 끝나면 마귀는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갖히고 죄와 사망의 저주도 끝나는 겁니다. 천년이 지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잠깐 풀려나지만, 그 전쟁이 최후의 전쟁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마귀는 불 못에 영원히 던져집니다. 아버지의 그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10 그 날이 오기까지 버리지 않으시며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끝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라

고난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망하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은 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 자식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리고 징계하지만 절대로 버리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버선 발로 뛰어나간 겁니다. 쫓아내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산을 미리 받아내는 자녀는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뛰어 나간 겁니다. 받은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돌에 맞아 죽을까봐 끌어앉고 감싸주려고 나간 거지요. 유대인의 법은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유산을 받아내는 사람은 처형 대상입니다. 죽인 사람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우리를 끌어 앉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시편 89 편에 있습니다.

31 그들이 내 규례들을 어기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32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과를 다스리며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리라 33 그러나 내가 나의 자애를 그로부터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할 것이요 나의 신실함도 약해지지 아니하며 34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하지 아니하리라 35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36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37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만 하면 금방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고백을 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자식이 두둘겨 패다가도 잘못했다고 하면 그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맞으면서도 그래 한 번 해봐라 하면 더 밉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못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해야 할 회개를 안 해서 계속 두둘겨 맞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버리지도 않으시고 자애도 거두지 않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진이 나 고통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이 땅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주님 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입니다. 그 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천사들이 그를 둘러 싸며 진을 치고 모든 재앙에서 건져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12 년 동안 멕시코를 다녀도 한 번도 위험에 처하지 않았고, 한 번도 비가 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날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가기 전에 비가 너무 와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아무래도 전도 못할 거 같으니 취소하자고 했지만, 도착하니까 햇빛이 쨍쨍 나서 땅을 마르게 해서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 아니었습니까? 어떤 때는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비가 쏟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는 거지요. 12 년이란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의 길은 주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지금까지 끌어 앉고 보호해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달아 알게 하신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질 모든 일들"**, **"오실 그리스도 / 오신 그리스도 /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충성하기 바랍니다. 아멘.